

釜山市 어머니 불조심會

—그들은 어떠한 活動을 벌이고 있는가—

釜山支部 點檢課
代理 金 東 敏

釜山市에 女子의 손길이 모인 “어머니 불조심會”(會長: 박복희 女史)가 組織되어 活潑한 움직임을 벌임으로써 全國的으로 火災들이 빈번히 發生하여 警火思想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要請되는 이때, 주위의 칭송이 자자하다.

그러면 釜山市 3 個 消防署傘下 “어머니 불조심會” 中 中部消防署傘下 “어머니 불조심會”의 움직임을 알아본다.

中部消防署傘下에 “어머니 불조심會”가 組織된 것은 1969年 4月 火災發生頻度는 勿論, 火災發生우려가 가장 큰 中部署 管內 特히 火災豫防의 行政力이 미치지 어려운 住宅密集地域의 家庭主婦들을 相對로한 火災豫防活動을 目的으로 設立된데서 비롯된다.

“어머니 불조심會”는 中部消防署에 本部를 두고 管內 中央·영도·부민·忠武·昌善·草梁·괴정·埠頭등 8個 派出소에 各 20名씩 分

會員을 두어 그 活動을 벌이고 있다.

家庭主婦라는 制限된 與件하에서 벌이는 이들의 活動은 그야말로 熱과 誠意로 뭉쳐진 맘의 결정이 아닐수 없고 會員 各者의 奉仕와 犧牲精神이 없는 限 그 活動의 實效는 事實上 期待하기 어려운 것이다. 效率的인 消防業務 推進을 위한 行政機關의 協助는 物論 火災脆弱地區에 역점을 둔 이들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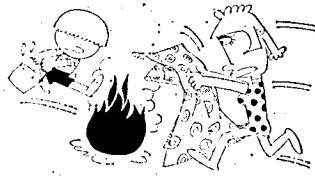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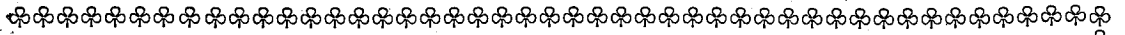


“어머니들의 商街電氣點檢光景”

活動狀況은 지금까지 多樣하게 展開되었다.

火災豫防強調期間中인 11月 1日~30日까지는 全會員이 參與하여 불조심 啓蒙印刷物과 「리본」 및 各種 標語 등을 製作配布하여 直接的인 火災豫防活動을 벌였으며 소속 派出所에 火災發生 및 注意 警報用으로 高性能 「애프」를 購入·寄贈함으로써 間接的인 啓蒙活動에도 크게 寄與하였다.

또한, 火災脆弱地區엔 住宅密集地域들과 學



校등을 巡回訪問, 主婦들과 어린이들을 相對로 啓蒙活動을 展開하므로써 防火思想을 高취시키는데 劃期的인 役割을 擔當하였다.

火魔로부터 내고장 내 살림을 내가 지킨다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일어난 이들은 火災를 豫防하기 위한 굳은 意志가 결여되어 있는가

운데 꾸준한 活動을 展開하고 있는데 “어머니會”의 運營經費는 1日茶房運營에서 얻는 收入金과 “어머니會”會員各者의 회사금 등으로 充當되고 있다.

이처럼 犧牲精神이 깃들인 이들의 一致團結된 活動은

家庭主婦들로 하여금 많은 呼應을 불러 일으켰고, 이러한 主婦들의 마음가짐에 副應하여 상당한 啓蒙效果를 낚고 있다는 것이 消防關係者의 이야기이다.

아직도 提高되지 못한 불에 對한 警覺心을 일깨우고, 불에 대한 고마움만 알고 있을뿐 무서움을 經驗하지 못한 一部 國民에게 火氣取

扱上의 注意를 일깨워 줌으로써 火災豫防啓蒙活動에 크게 이바지 하겠다는 이들 會員의 決意는 더욱 굳게 다져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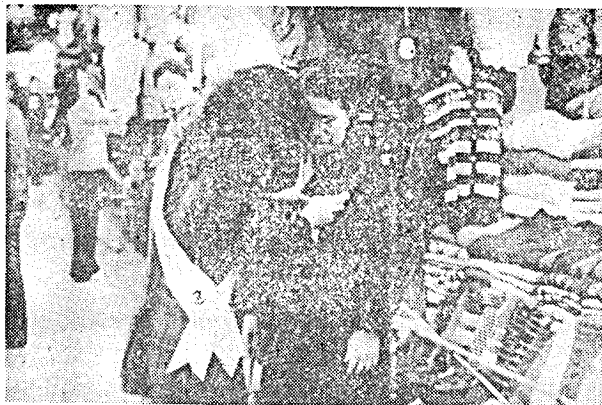
“어머니 불조심會”의 한 임원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火災는 우리의 무서운 敵입니다. 피땀흘려

建設한 産業施設, 우리의 살림살이들이 잠깐의 不注意로 잦더미로 變하는 事例를 우리는 너무도 많이 보아 왔으면서도, 또 時間이 흐르던 불의 무서움을 忘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微弱하

나마 火災의 무서움을 一般人에게 일깨워 주고 消防當局의 活動에 무엇인가 보탬이 될수 없을까 해서 組織하고, 또 活動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앞으로는 “어머니 불조심會”會員들만의 일이 아니라 全國의 모든 어머니가 會員이라는 생각으로 불조심에 各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요.」라고.....



어머니들이 국제시장에서 불조심 리본을 달아주고있는 光景

